

제 목: 2012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7월 CBSI 1.9p 상승한 65.7 기록

- 통계적 반등 영향 4개월만에 소폭 상승, CBSI 수치는 여전히 매우 저조, 8월 CBSI 전망치 소폭 하락, 5.28 경제활성화 조치, 7.21 청와대 토론 이후 거론된 조치들이 당장 8월 건설경기 회복을 전인하기는 어려울 전망 -

- 2012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9p 상승한 65.7을 기록함.
 -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6.1p 하락)했던 CBSI가 4개월만에 소폭 상승함.
 - 통상 7월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흑서기로 접어들에 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
 - 이는 지난 4월 이후 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 7월 지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5~6월 동안 큰 폭(22.0p)으로 하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만이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7월에도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7월 중견업체의 지수 상승은 대부분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7월 CBSI는 전월비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월 CBSI 수치 65.7은 2010년 10월(68.5) 이후 현재까지 2011년 10월(65.4), 2012년 1월(62.3), 5월(65.4), 6월(63.8)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
- 한편,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4p 하락한 64.3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4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7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8월에는 여전히 흑서기가 지속됨에 따라 계절적 요인에 의한 CBSI 변동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8월 CBSI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지난 5.28 하반기 경제활성화 조치와 7.21 청와대 토론 이후 거론되고 있는 내수 활성화 조치들이 당장 8월에는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한 반면,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6.0p 상승한 56.0을 기록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중견업체의 지수 상승은 대부분 통계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7월에도 삼환기업이 추가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했는데, 이미 5월 풍림산업, 6월에는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중견업체 지수에 기반영되었고, 중견업체 지수도 5~6월 동안 22.0p나 급감해 7월에는 통계적 반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난 6월에 전월비 소폭(0.6p) 상승해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7월에는 전월과 동일한 92.9를 기록해 체감경기 수준에 큰 변동이 없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소폭(0.8p) 하락한 44.8을 기록했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흑서기로 접어들어 따라 체감경기 지수가 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지수는 여전히 50선을 밑돌아 체감경기 수준이 매우 부진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7월 들어 공사대금수금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6, 96.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5, 77.3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0, 81.0을 기록했는데, 특히 공사대금수금 지수가 전월비 10.3p 하락해 공사대금수금 관련 상황이 7월 들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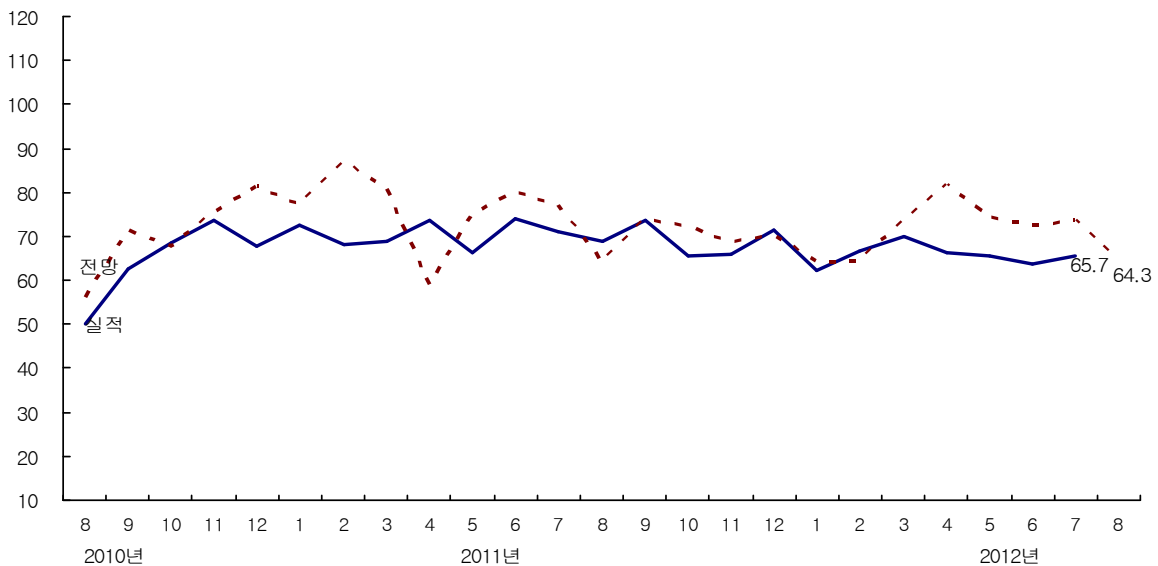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1.9p 상승한 65.7 기록,
통계적 반등 영향 4개월만에 소폭 상승

- 2012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9p 상승한 65.7을 기록함.
-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6.1p 하락)했던 CBSI가 4개월만에 소폭 상승함.
- 통상 7월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혹서기로 접어들에 따라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
- 이는 지난 4월 이후 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 7월 지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5~6월 동안 큰 폭(22.0p)으로 하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만이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7월에도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7월 중견업체의 지수 상승은 대부분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그러나, 7월 CBSI는 전월비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월 CBSI 수치 65.7은 2010년 10월(68.5) 이후 현재까지 2011년 10월(65.4), 2012년 1월(62.3), 5월(65.4), 6월(63.8)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상승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한 반면,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함.
 - －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6.0p 상승한 56.0을 기록해 7월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중견업체의 지수 상승은 대부분 통계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 7월에도 삼환기업이 추가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했는데, 이미 5월 풍림산업, 6월에는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중견업체 지수에 기반영되었고, 중견업체 지수도 5~6월 동안 22.0p나 급감해 7월에는 통계적 반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3.8	65.4	66.0	71.6	62.3	66.7	69.9	66.4	65.4	63.8	65.7	73.7	64.3
규모 별	대형	100.0	84.6	84.6	83.3	76.9	92.9	85.7	71.4	92.3	92.9	107.1	92.3
	중견	73.1	68.0	64.0	68.0	69.6	58.3	68.0	72.0	58.3	50.0	56.0	56.0
	중소	43.9	40.0	46.4	61.8	36.8	45.6	53.4	54.1	41.8	45.6	44.8	41.1
지역 별	서울	91.6	74.1	73.9	72.5	73.7	81.4	74.7	74.1	74.9	72.1	79.4	77.6
	지방	47.5	52.7	53.8	70.1	47.5	46.5	62.5	54.9	53.6	51.0	45.2	44.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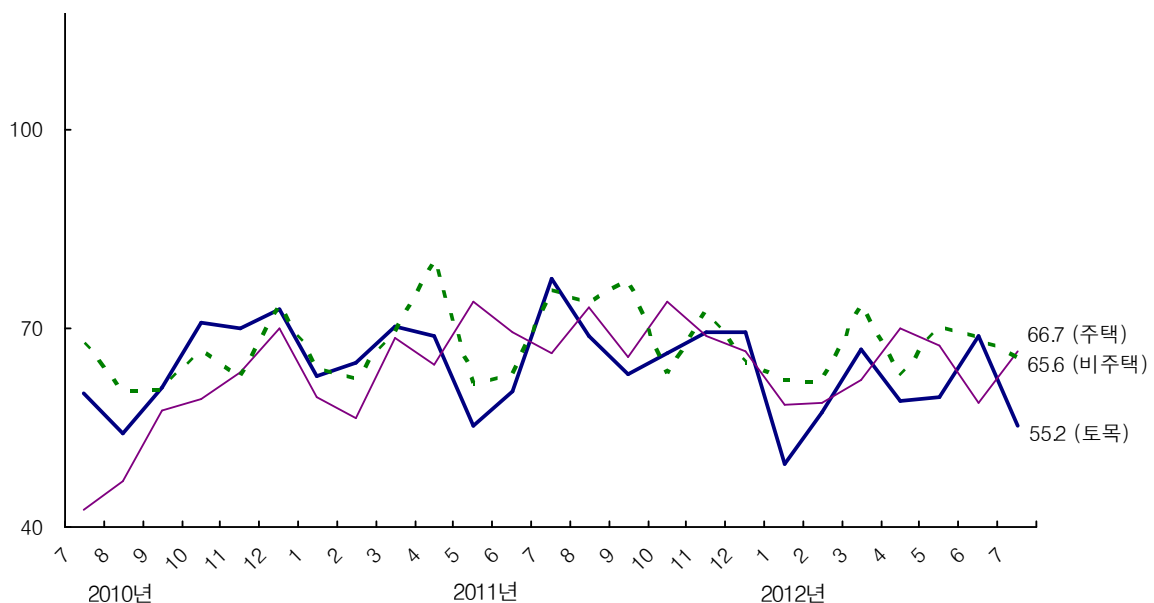
- － 한편, 지난 6월에 전월비 소폭(0.6p) 상승해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7월에는 전월과 동일한 92.9를 기록해 체감경기 수준에 큰 변동이 없었음.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소폭(0.8p) 하락한 44.8을 기록했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흑서기로 접어들에 따라 체감경기 지수가 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지수는 여전히 50선을 밑돌아 체감경기 수준이 매우 부진함.
- 한편,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4p 하락한 64.3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4p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7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8월에는 여전히 흑서기가 지속됨에 따라 계절적 요인에 의한 CBSI 변동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8월 CBSI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지난 5.28 하반기 경제활성화 조치와 7.21 청와대 토론 이후 거론되고 있는 내수 활성화 조치들이 당장 8월에는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지역별로 7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7.3p 증가한 79.4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5.8p 감소한 45.2인 것으로 나타남. 결국, 지방업체의 침체가 토목물량의 위축과 함께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분석됨.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7.3p 증가한 79.4를 기록, 지수가 80선에 근접하면서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보다 5.8p 감소한 45.2으로 지수가 네달 연속 하락하였으며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침체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판단됨.

7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3.5p 감소한 69.2

- 7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5p 감소한 69.2를 기록, 지난 6월의 감소세를 지속함. 혹서기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0p 이상 감소하여 전체 물량지수가 3p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 물량지수는 2~5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 지난 5월 을 들어 가장 높은 73.0을 기록하였음.
 - － 이후 6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이후 7월에도 3.5p 하락해 지수가 2개월 연속 위축됨.
 - － 지난 10년간 6~7월 사이 물량지수가 평균적으로 2.6p 감소하였음. 올해 7월 지수 하락은 혹서기에 따른 공사 물량이 감소한 계절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10년 평균치 보다 1p 정도 더 하락하였는데 이는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13.7p나 하락해 침체가 극심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8.1p 상승하였으나, 비주택과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3.0p, 13.7p 하락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 주택 물량지수는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에 급격히 진행된 유럽발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지난 5~6월 2개월 연속 하락하였음. 그동안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해 50선에 불과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7월에는 전월 대비 8.1p 상승한 66.7을 기록함.
 -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7.4p 증가한 70.3을 기록해 공중 중 유일하게 70선을 넘어섰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1.7p 하락한 이후 7월에도 3.0p 하락한 65.6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6월 전월 보다 9.3p 증가해 지수가 일부 회복 되는 듯 했으나, 7월 들어 다시 13.7p 급감한 55.2를 기록, 한달만에 다시 50선으로 돌아섬.
- 업체 규모별로 중견업체가 전월 보다 13.2p 상승한데 반해, 대형과 중소기업이 각각 7.1p, 18.2p 하락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1p 하락한 92.9를 기록함. 공중별로 비주택물량 지수가 100을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실적을 보였다고 응답함. 한편, 주택이 85.7을 토목이 71.4를 각각 기록해 공중 중 토목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9.2	92.9	69.2	41.4	86.7	42.6
	전망	65.4	92.3	56.0	44.6	78.6	45.7
토목	실적	55.2	71.4	58.3	32.8	66.7	37.6
	전망	60.1	76.9	60.9	39.6	71.0	43.4
주택	실적	66.7	85.7	65.4	45.8	78.1	49.1
	전망	71.9	100.0	68.0	43.5	85.5	51.6
비주택	실적	65.6	100.0	53.8	38.6	82.2	40.4
	전망	61.8	92.3	52.0	37.0	74.0	43.5

주 : 실적은 2012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6월 보다 13.2p 상승한 69.2를 기록함. 토목 물량지수가 지난 6월과 동일한 58.3을 기록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6.2p 감소한 53.8로 공중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9.4p 상승한 65.4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8.2p 하락한 41.4를 기록, 지난 5월 49.1 이후 다시 두달 만에 40선으로 하락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19.9p, 11.4p 하락함.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5p 상승하였으나 지수는 45.8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6.7을,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17.4p나 하락한 42.6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8p 상승한 86.7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토목 물량 지수가 전월 보다 9.6p 하락한데 반해,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2.0p 6.7p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7.4p 급감한 42.6을 기록, 올해들어 가장 부진한 수치를 기록함. 주택이 전월 보다 2.8p 증가했으나, 토목이 19.5p 감소한 37.6으로 침체가 심각했으며, 비주택 또한 7.6p 하락한 40.4로 부진하였음.
- 2012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월 실적치보다 3.8p 하락한 65.4로 전망함.
 - 지난 2002~2011년까지 7~8월 사이 공사물량 지수는 평균적으로 4.5p 하락하였음.
 - 올 8월 전망치가 7월보다 3.8p 하락한 6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여름철 비수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임.
 -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5.5p, 14.3p 상승한 60.1, 7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8p 감소한 61.8로 전망, 공종별로 토목 물량의 침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공사대금수급 상황 전월 대비 많이 악화**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7월 들어 공사대금수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6, 96.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5, 77.3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0, 81.0을 기록했는데, 특히 공사대금수급 지수가 전월비 10.3p 하락해 공사대금수급 관련 상황이 7월 들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9.0	100.0	69.2	65.5	83.9	71.9
		전망	78.8	100.0	72.0	61.8	83.2	72.2
	자금조달	실적	81.0	107.1	73.1	59.3	83.4	78.0
		전망	80.4	107.7	68.0	62.5	80.9	79.6
인력	수급	실적	96.6	100.0	96.2	93.1	99.6	93.6
		전망	96.7	100.0	100.0	89.1	102.0	90.7
	인건비	실적	83.5	100.0	88.5	58.6	94.8	66.7
		전망	84.6	100.0	92.0	58.2	96.5	67.4
자재	수급	실적	96.0	107.1	91.7	87.9	97.8	94.5
		전망	97.3	107.7	95.5	87.3	101.0	91.3
	비용	실적	77.3	100.0	75.0	53.4	88.5	60.7
		전망	79.7	107.7	73.9	53.6	93.1	60.0

주 : 실적은 2012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